

린치와 폭탄: 전후 일본사회에 출현한 두 개의 폭력의 이미지

Lynchings and Bombs: Two Images of Violence that Emerged in Postwar Japanese Society

이영진^{••}

국문요약 이 글은 1970년대 초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두 개의 폭력을 다룬 와카마쓰 코지(若松孝二) 감독의 극영화 <실록 연합적군>(2008)과 한국의 김미례 감독의 다큐멘터리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2020)라는 두 편의 영화를 통해 당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주류 미디어가 만들어낸 강력한 ‘폭력’의 이미지를 재검토하면서, 그러한 이미지의 폭력의 자장에서 벗어나 그 폭력의 의미를 새로이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주류 미디어의 폭력의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결국 연합적군 내부에서 발생한 가혹한 총괄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데 실패한 와카마쓰 감독의 작품과 달리, 김미례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미쓰비시 중공업 폭탄 테러의 장본인인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대원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감옥에서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면서도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동아시아 연대라는 대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성공한다. 이들의 회한과 성찰, 그리고 연대는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기존의 도구주의 프레임을 넘어서, 주디스 버틀러가 명명한 “폭력의 제도적 삶”을 전복시키기 위한 “에토스-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전후 일본, 연합적군,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탈식민주의, 비폭력, 반폭력

- 차례**
1. 들어가며
 2. ‘총괄’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남긴 상처
 3. 폭력과 책임의 문제
 4. 나가며: 반성과 속죄, 그리고 반폭력의 문제설정

1. 들어가며

그때는 20이 넘는 하이스코어 게임이었어. 9프레임까지 거의 같은 스코어로 막상막하였지. 그런데 10프레임 째에 켄

지는 스네이크 아이를 내버렸어. 7핀과 10핀이 평행으로 남은 스플리트 말이야. 한 번에 쓰러뜨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보통은 포기하고 확실하게 하나를 노리지. 하지만 그 때 둘 다 잡지 않으면 켄지에게 역전승의 기회는 없었어. 공에 스핀을 잔뜩 먹이고, 핀 바깥에 가볍게 히트시킨 후 옆으로 튕게 할 수밖에 없지. 스핀을 먹은 공은 도랑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굴러갔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공은 핀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도랑에 빠져버렸지. ... 좋은 게임이었어 ...

- 우라사와 나오키, 『20세기 소년』 중에서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어떠했

는가’를 인식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는 것을 뜻한다. 역사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6B5A02004223).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적 유물론의 중요한 과제는 위험의 순간에 역사적 주체에게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불드는 일이다.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중에서

흑백 기록 영상으로 남아 있는 1960년대의 전후 일본
은 외관상 지극히 평온해 보이는 지금의 일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안보투
쟁, 그리고 총자본 대 총노동의 투쟁이라 불리던 미이케
쟁의(三池争議)로 문을 열었던 1960년대의 투쟁은, 1964
년 베트남전쟁 발발과 더불어 결성된 ‘베헤렌(ベ平連 정식
명칭: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그리고 68혁명과 전공투
(全共闘)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전후 일본사에서 ‘정치
의 계절’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보수 자
민당 출신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내걸었던 ‘소득배증(所得
倍増)’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상징되는 고도경제성장의
시대이자,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
람회(万博)로 상징되는 자본의 스펙터클의 시대이기도 했
다. 그리고 1970년대로 접어들어 풍요로운 고도소비자본
주의 사회로 안착하면서 짧았던 정치의 계절은 바야흐로
종말을 고한다(“祭りが終わった!”). 당대의 유행가(《이치고백
서를 다시 한 번いちご白書をもう一度》, 1975) 가사처럼 거리의
젊은이들은 “취직이 결정되자 머리를 짧게 깎고” 고개를
숙인 채 회사로 향했다. 물론 그 소멸의 시기를 둘러싼 논
란의 여지는 있지만, 1972년 ‘아사마(浅間) 산장사건’으로
도 불리는 ‘연합적군(連合赤軍) 런치사건이 한 시대의 종말
을 알리는 우울한 전조였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물론 정치의 계절의 종식, 혹은 정치적 유토피아의 소
멸은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포스트 1945) 재
편성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던 반
제국주의·탈식민운동과 그 산물로서의 신생 독립국가
들, 그리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1세계나 공산주의 제2세계

로부터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세력화를 모색했던 제3세
계운동, 트리컨티넨털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꿈꿨던 새로
운 유토피아가 “함정”에 빠지고 결국 “암살”당하는 시기
와도 겹쳐진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식민주의에 대
한 공동의 증오심으로”, “인종주의에 대한 공동의 증오심
으로”, “세계평화를 보전하고 안정시키는 공동의 목표로
우리는 한데 모였다”¹고 당당히 선언했던 1955년의 반동
정신은 이미 퇴색되어가고 있었다. 1966년 아바나에서
열린 첫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연대회의
(삼대륙회의)에 당시 또 다른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
해 콩고에 있던 체 게바라가, 당시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
는 베트남 인민과 연대하기 위해 “제2 또는 제3의 베트남
을, 아니면 제2 그리고 제3의 베트남”을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는 당시 이미 다른 현실정치를 모색하고 있던 제3세
계 형제국가들의 정치가들에게 공허하게 들렸을 것이다.²

이 시기는 국민국가를 넘어서고자 했던 새로운 형제애
의 연대와 꿈이 배반당하고, 유토피아를 꿈꿨던 언어들이
그 힘을 잃어가는 시기였다. 또한 제국, 국가, 나아가 자본
주의 체제와 맞서 싸우던 ‘반체제운동’³ 세력들이 자신들
의 광장을 잃어버리고 점차 밀실로 후퇴하는, 그리고 투쟁
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힘이 약해지면서 점차 ‘폭력’에
의존해가는 것도 이 시기이다.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에
한정해서 본다면,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 연합적군 사건,
그리고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주도한 일본 전범기업
들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는 폭력으로 얼룩진 이 시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 글은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제작된, 연합
적군 사건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폭탄 테러 사건을
다룬 두 편의 영화를 통해 당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주류

1 비자이 프라사드, 박소현 역, 『갈색의 세계사: 새로 쓴 제3세계 인민의 역
사』, 뿌리와이파리, 2015, 61쪽.

2 위의 책, 160쪽.

3 이매뉴얼 월러스틴 외, 천지현·송철순 역, 『반체제운동』, 창작과비평사,
1994.

미디어가 만들어낸 강력한 ‘폭력’의 이미지를 재검토하면서, 그러한 이미지의 폭력의 자장에서 벗어나 그 폭력의 의미를 새로이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두 편의 영화는 일본의 와카마쓰 코지(若松孝二) 감독의 장편 극영화 〈실록 연합적군: 아사마 산장으로의 도정(実録・連合赤軍 あさま山荘への道程)〉(2008)과 한국의 김미례 감독의 다큐멘터리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2020)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 시공간에 출몰했던 강력했던 유토피아적 상상력들을 떠올려본다면, 그 꿈들이 하나둘 배반당하고, 또 소멸해버린 지금의 포스트 유토피아 사회에서 그 잔해들을 다시 바라보는 작업은 비단 과거의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적 회고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당시 ‘19세기의 수도’라 불리던 파리 시가지에 흔적처럼 남아 있는 폐허들에서 신화화된 근대의 알레고리를 포착하려 했던 벤야민의 시도처럼, 모든 적들이 소멸되어 완벽을 구가하는 듯이 보이는 지금의 스펙터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거가 인식 가능성의 지금과 관계 맺는 형식이자, 점진적인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는 연속성의 고리를 파괴하고 역사적 존재의 의식에 섬광처럼 스치듯 나타나는 과거의 ‘진정한’ 형상”⁴으로서의 변증법적 이미지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자, “어떤 ‘질서’의 이미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는 거울”⁵로서의 만화경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2. ‘총괄’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남긴 상처

1972년 일본 나가노(長野) 현의 산 속 아지트에서 무장 훈련 도중 경찰의 포위에 쫓긴 연합적군 멤버 5명이 아사

마 산장을 점거, 산장 주인을 인질로 잡고 농성한 이 사건은 텔레비전 방영으로 생중계되어 당시 일본사회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은 이들의 농성과 인질 구출작전을 다룬 특별보도방송이 기록한 50.8퍼센트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아직까지도 이 시청률은 깨지지 않았다고 한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적어도 일본 사회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숨을 죽여 가며 이 희대의 사건을 텔레비전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도쿄대 야스다강당(安田講堂)의 공방전이 끝난 지 4년만이다. 주류 미디어가 포착해 대량 생산·유포된, 검게 그을리고 파괴된 야스다 강당의 이미지는 일반 대중들의 기억 속에 과격하고 반지성적인 학생운동이 부른 참사라는 각인을 새기는 데 성공했다.

아사마 산장 사건을 둘러싸고도 가담 멤버들의 회고록에서부터 르포, 소설, 다큐, 극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져왔다. 정치의 계절이 끝나가던 시기, 적어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던 일본사회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든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매스컴의 관심에 대해 선정적인 소비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 당시 농성 중이던 연합적군은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미디어의 프로파간다 공세에 왜 그토록 무기력했는가, 왜 그들은 농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싸움의 명분, 즉 대항 프로파간다를 발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

어찌됐건 연합적군과 아사마 산장의 사건은 전후 일본의 극좌적 폭력주의의 마지막 폭발이자, 해소 정도로 정리되는 듯 했다. 뒤이어 이어지는 운동 진영 내부의 폭력투쟁(우치케바)의 와중에서 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젊은이들은 현장을 떠나 ‘회사 인간’이 되어갔고, 또 일본사회의 고도 자본주의는 이후 전세계적 ‘오일 쇼크’를 ‘현명하게’ 극복해내면서, 버블로 이어지는 장밋빛 로도스의 시대를 꽃피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시

4 강수미,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2011, 89쪽.

5 발터 벤야민, 김영옥·황현산 역, 『중앙공원』, 『발터 벤야민 선집 4: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 제정기의 파리/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도서출판 길, 2010, 158쪽.

절에 대한 노래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하지만 아름다웠던~~”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후일담 장르들은 체제에 아무런 동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땐 그랬지”라는 노스텔지어의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현실/실재를 가리울 뿐이다.

와카마쓰 코지(若松孝二) 감독의 <실록 연합적군: 아사마 산장으로의 도정(実録・連合赤軍 あさま山荘への道程)>(2008)은 잊혀져가던 이 사건에 대한 극영화계의 가장 진지한 시도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와카마쓰 코지 감독은 과거 한국에서도 회고전이 열린 적이 있었다. 필모그래피를 잠깐 훑어보면 1960년대부터 로망 포르노 영화들을 다수 만들면서, 동시에 당시의 학생운동이나 좌파의 우치게바, 연합적군 등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와카마쓰 감독은 <연합적군>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2002년에 나온 극영화 <돌입하라! 아사마산장 사건(突入せよ! あさま山荘事件)>(하라다 마사토[原田眞人] 감독, 2002)을 보고 난 후 느꼈던 ‘분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⁶ 이 영화는 제목만 보면 웬지 좌파의 프로파간다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시 진압작전에 가담했던 경찰, 즉 권력층의 시각에서 아사마 산장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적어도 1960~1970년대 저항의 세대의 일원임을 자부하는 와카마쓰로서는 연합적군을 이렇게 ‘초라한’ 복면 테러리스트로 그리며, 그리고 아사마 산장의 사건을 ‘희대의 인질 구출작전’ 정도로 묘사하는 세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느꼈을 것이다.

영화는 제목이 암시해주듯,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동맹 적군파, 혁명좌파라고 명명하던 일군의 극좌파 젊은이들이 왜 ‘연합적군’을 결성, 총을 들고 나가노 현의 산 속 아지트로 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1960년대 일본의 변혁운동(학생운동)의 흐름을 다큐 식으로 편집해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1960년 안보투쟁이 만들어낸 광장(広場)의 정치, 1967년 10월 하네다 투쟁, 1968년 5월 일본대학 전공투 결성과 6월 도쿄대 전공투 결성, 그리고 뒤이은 전국으로 퍼진 대학가 투쟁과 1969년 1월의 도쿄대 야스다 공방전과 1970년의 안보투쟁, 하지만 점차 가중되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세에 패퇴해가는 운동과, 여러 학생운동 정파(섹트)들의 현란한 이합집산과 내부투쟁(우치게바[内ゲバ]), 적군파 결성과 요도호 납치 사건 등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1971년 7월, 일본 공안에 의해 체포된 상태인 적군파의 군사조직인 중앙군과 혁명좌파의 군사조직인 인민혁명군이 통합되어 결성된 연합적군은 소위 일본 학생운동세력 중에서도 (경력 상으로만 본다면) ‘최정예’들이 모인 집단이었다. 하지만 이미 4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적어도 많은 것을 알아버린 상황에서 와카마쓰 감독 역시 예전 자신이 찍었던 <赤軍-PFLP 世界戦争宣言>(1971)과 같은, “프로파간다의 절정은 무장투쟁이다”라는 식의 영화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30분 정도 당시 학생운동의 흐름을 다큐 식으로 해설해가던 영화는 연합적군이 산 속으로 들어가 무장군사훈련을 하면서 맞닥뜨렸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총괄’을 다루기 시작한다.

이 영화의 백미이자,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은 연합적군의 거점인 <산악 베이스>에서 일어난 집단 린치사건, 즉 ‘총괄(總括)’에 대한 감독의 집요하리만치 상세한 묘사일 것이다. ‘총괄’이란公安경찰의 승진시험참고서인 『이해하기 쉬운 극좌/좌익/일본공산당용어집』에 따르면, “혁신정당, 노동조합, 학생조직 등이 하나의 투쟁이 끝난 단계 혹은 대회의 시기 등에 이제까지의 활동을 매듭짓는 의미에서 성과나 결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 군대 훈련병 시절에 훈련소 내에 비치된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흐름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문건’을 보면서 각 정파의 입장들의 차이와 상호 영향관계 및 내력을 깔끔하게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낸 그 간결명료함에 경탄했던 적이 있다. ‘단순무식’ 정리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

6 『毎日新聞』, 2009.2.17. <http://mainichi.jp/enta/cinema/news/20090217dde012200005000c.html> (2025년 11월 1일 검색)

만, 역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상대의 하나는 ‘적’인 것이다. 또 이러한 도표화야말로 푸코가 언급했던 권력자들의 영원한 꿈인 판옵티콘의 산물이다.⁷

일본의 운동 조직 내에서도 ‘총괄’은 익숙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사마 산장에서 일어난 독특한 점은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다 함께 반성하며 검증하고 그 결과의 개략을 정리함으로써 다음 행동방침을 세우기 위한 방법인 ‘총괄’과, 멤버 개개인에게 강요된 자기비판이 결합하면서 무수한 파괴력, 미국의 사회학자 파트리샤 스테인호프(P. Steinhoff)가 명명한 ‘죽음에 이르는 이데올로기[deadly ideology]’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숙련된 지도자가 아니라면 조절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집단의 힘을 제멋대로 날뛰도록 풀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던 집단적인 의식 고양법의 빈번한 사용(브레이크 없음), 공산주의화를 달성한 상태와 개인이 변혁을 성취한 상태의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기준 없음), 공산주의화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는 아무도 산을 내려갈 수 없다는 원칙(출구 없음)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였다.⁸

그들은 집단의 이름으로 ‘반혁명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동료들에게 “새로운 혁명전사로 거듭하기 위해 (너의) 모든 반혁명적 과거를 총괄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반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행동은 여성 대원이 화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대화를 들을 때 머리를 어루만지거나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단순한 ‘주의’가 주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총괄의 강도는 강해지고 자신들이 명명한 “동지적 원조”의 수단으로 그들은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총괄 대상으로 분류된 한 대원은 겁에 질려 계속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에 대한 총괄을 수행하지만(심지어 총괄로 죽은 동료를 운반해서 묻거나, 그 죽은 동료의 시체를 구타하

는 명령까지), 총괄은 결코 완료될 수 없다. 그것은 총괄이라는 행위가 내포하는 속성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리 총괄을 수행한다 해도 그 ‘혁명적 이상’이라는 준거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기준 없음), 총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총괄하는 자신의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지의 죽음은 조직이 상황을 재인식하고 폭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새로운 방침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합적군 지도부는 그 죽음을 ‘패배사(敗北死)’, 즉 공산주의화를 이룩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충격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이데올로기’를 완성시켰다. 패배사 이론은 공산주의화를 위한 폭력적 총괄 요구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폭력의 확대를 멈출 제동 장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⁹ 멤버들은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포로가 되어, 오히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다음의 총괄을 묵묵히 수행하고, 그 결과 12명의 동지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일어난다.

혁명운동 과정에서의 인텔리겐치아의 자기부정, 그리고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폐쇄된 가혹한 해방구 내에서 동지들 사이에 벌어지던 내부 암투와 희생양 만들기는 늘상 있어왔다. 1930년대의 만주(민생단사건!)나 1940~1950년대의 소련(스탈린 치하의 공포정치), 혹은 그 이후의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빈발했다. 연합적군들의 ‘총괄’ 역시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학자 루이스 코저의 지적처럼 희생양은 적개심을 진정한 적에게 향하지 못할 때 안전한 분출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¹⁰

하지만 이들의 총괄과 1970년대 연합적군의 총괄의 결정적 차이는 그들을 둘러싼 적대적 환경, 그리고 총괄의 주체였다. 당시 소련이나 중국에서 ‘스파이’든, 아니면 ‘반

7 미셸 푸코, 오토트랑 역,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105쪽.

8 파트리샤 스테인호프, 임정은 역, 『적군파: 내부 폭력의 사회심리학』, 교양인, 2013, 172~173쪽.

9 위의 책, 172~173쪽.

10 위의 책, 232쪽.

혁명분자’든, 조직 내부의 희생양을 규정하는 주체는 거대한 국가관료기구였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는 냉전 치하의 명백한 적국(미국)의 무력개입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한편 민생단 사건의 경우는 일본군의 격렬한 공세에 밀린 가혹한 환경의 1930년대 후반 만주의 게릴라 지대에서 조선공산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서 일제의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극심한 내부 암투였고, 그 결과 많은 조선인 혁명가들이 희생을 당한 비극적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당 중앙의 주도로 이러한 광기를 극복해내고 다시 대오를 정비해서 공동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나아간 역사로 기억되기도 한다(물론 ‘슬기로운’ 극복을 김일성의 리더십으로 이야기하려는 서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1971년 12월부터 1972년 2월에 걸쳐 산악 아지트에서 연합적군 내부에서 일어난 총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공식 국가기구에 속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외부의 가시적인 위협도 존재하지 않던(물론 상상으로서의 적은 항상 존재했지만), 전후 민주주의 아래 비교적 평화로워 보이던 1970년대 일본 사회 내의 20~30명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런 가혹한 내부총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영화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집요하리만치 길게 그 내부 총괄의 전면모를 그려낸다. 총괄을 강요하고, 또 그 총괄의 일환으로 동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자마저도 총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침내 내부 총괄이 일단락 지어졌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공포, 그리고 도대체 자신들이 수행하는 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회의와 의심뿐이었을 것이다. 총괄을 총체적으로 지도했던 지도자 그룹 역시 이미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결국 1972년 2월 하순, 지도자마저 체포당한 후 연합적군의 잔존 대원들은 쫓기고 쫓겨 아사마 산장까지 당도하게 되고, 산장을 포위한 경찰과 대치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열흘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에서 25세에서 16세에 이

르는 5명의 연합적군의 젊은이들을 포위한 경찰의 수는 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한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10일에 걸친 대치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내부 린치 사건이 밝혀지기 전이었고, 따라서 공권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꺾히지 않고 버티고 있는 연합적군에 대한 대중들의 동정적인 여론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의 목적이나 의의에 대해 외부 세계에 메시지를 전혀 발신하지 못했다.¹¹ 무력진압으로 대치 국면이 종식되고 이후 경찰의 조사에 의해 내부 린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들은 외부의 적과의 ‘진정한’ 싸움을 통해 총괄 과정에서 죽은 동지들에 속죄하고 싶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을 뿐이다.

국가의 권력/폭력에 대해 고찰했던 베버, 그람시, 벤야민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국가는 폭력비판론자들을 ‘폭력적’이라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독점한다. 우리는 경찰이나 구사대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나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인간 바리케이드가 ‘폭력적’ 공격행위로 전도되는 현실을 종종 목도해왔다. 그리고 TV로 대표되는 대중 미디어는 경찰과 대치하며 총을 든 이들의 폭력, 그리고 체포 이후 밝혀진 내부총괄의 실상을 스펙터클한 이미지와 함께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상품화했다.¹² 여기에는

11 사회학자 노가미 겐은 아사마 산장에 농성 중이던 연합적군 대원들이 취했던 기묘한 침묵에 주목하며, 조금 앞서 있었던 아사다 강당 공방전(1969)이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의 자결사건(1970)에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경찰, 그리고 그것을 미디어의 작용에 의해 한층 에워싸고 있는 국민이라는 대칭관계가 있었던 데 반해, ‘아사마 산장’ 사건은 이전과 미묘하게도 다른 침묵하는 당사자와 거기에 안달난 관중이라는 대칭관계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野上元, 「あさま山荘事件と「戦争」の姿容: 「メディア論」の現代史のために」, 北田暁大[外編], 『カルチュラル・ポリティクス 1960/1970』, 東京: 세리카書房, 2005, 101쪽.

12 미디어학자인 김향은 1970년대 초 일본의 미디어가 당대 급진파 학생운동을 비밀과 음모를 꾸미는 인류의 적으로 스펙터클화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주권과 스파이, 혁명과 테러리스트 사이를 대중 미디어가 매개하면서 단절시킨다. 한쪽에서 통치의 비밀을 공개하라는 계몽의 압력은 미디어 스펙터클 속에서 대리 보충되면서 국가기밀이라는 명분 아래 좌절된다. 다른 한쪽에서 혁명의 비밀정치는 글로벌 뉴스네트워크를 통해 광신도들의 폭력과 음모로 범죄화된다. 이렇게 비밀은 주권/혁명과 유리된 채

내부 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세세한 보도에서부터 그 사건의 주모자 중 1명인 혁명좌파의 여성 리더 나가타 히로코(永田洋子)에 대한 ‘마녀사냥’에 가까운 선정적 기사에 이르기까지 실로 화려했다.¹³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 자본의 스펙터클한 공세에 대한 기묘한 침묵, 혹은 무기력한 반응이 당대 변혁운동의 동조자들에게서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가장 지성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조차도 내부 린치가 자행되던 산악 베이스캠프에서 살아남은 연합적군 내 가장 어린 고등학생 소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쓰면서,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살아남아서 생각을 거듭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함께 캠프에 자원했던 삼형제의 막내로, 큰형이 집단 린치로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캠프 내에서 임시 화장실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살아남은 소년이 이후 방황하면서도, 오에 자신으로 보이는 작가와 수차례 서신 교환을 하면서 점차 내적으로 성장하면서 아프리카에 정착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어떤 실패나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휴머니즘적 스토리에 머무를 뿐, 당대의 정치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¹⁴

와카마쓰 감독이 연합적군에 대한 신작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더구나 그 자신이 기존 대중 미디어가 만들어낸 연합적군의 이미지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연합적군사건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연합적군 자신이 당시 자신들은 왜 총을 들고 싸워야 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괄이라는 이름의 극단적인 내부 린치로 스스로 자멸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자인 와카마쓰 역시 영화 제작 과정에서 길을 잃은 듯이 보인다. 결국 〈돌입하라〉식의 경찰 측의 일방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결국은 그와 비슷한 적군파의 ‘패배의 기록’으로, 더욱이 그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다. 그것은 1970년대 초 일본의 급진적 학생운동이 주도한 무장혁명의 실패이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학생운동은 ‘우치게바’(内ゲバ)로 불리는 내부 분쟁, 항공기 납치 등과 같은 더욱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닫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샌가 나 역시 그 시대를 잊어가고 있었다.

3. 폭력과 책임의 문제

한동안 잊고 있던 이 시대의 폭력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우연히 김미례 감독의 다큐멘터리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2020)을 보았던 2023년 여름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개봉해서 아쉽게도 볼 수 없었던(‘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어느덧 희미한 기억이 되어버렸다!) 이 다큐멘터리가 2023년 서강대 CGSI와 DMZ 국제영화제가 공동 기획한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우연한 계기로 이 영화의 GV 사회를 맡게 되면서, 소

대중매체의 표상 속에서 영속되는 것이다. 이상 김향, 『어떤 패배의 기록: 전후 일본의 비평, 민주주의, 혁명』, 창비, 2025, 262~263쪽.

13 그 한 예로 일본의 대표적인 대중 주간지 『선데이 마이니치サンデー』의 1973년 3월 26일 호에는 ‘간첩특보’로 ‘대학살! 연합적군·피의 숙청’이라는 대특집 아래 ‘총괄에는 동사(凍死)가, 사형에는 칼이 ...’, ‘살인한 녀석이 다음 날에는 살해당했다’, ‘“피의 숙청”의 역사’ 등의 기사와 함께 ‘〈르포〉 산 속에 매장된 오부’나 ‘광기의 권력자 모리 쓰네오와 마녀 나가타 히로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체의 시체로 나온 “여병사”들’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특히 ‘광기의 권력자 모리 쓰네오와 마녀 나가타 히로코’에서는 범죄심리학자인 전문가가 “이번 사건”의 ‘잔학함’은 ‘집단에 여성이 함께 있었던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 坪内祐三, 『一九七二:「はじまりのおわり」と「おわりのはじまり」』, 東京: 文藝春秋, 2006, 77쪽.

14 오에 겐자부로, 양역관 역, 『하마에게 물리다』, 고려원, 1997[1985]. 물론 이러한 인식의 한계가 자신보다 한 세대 젊은 학생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전후민주주의자’라는 아유를 받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문으로만 듣던 이 작품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 6월의 평일 저녁에 상영된, 더구나 다큐멘터리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객들로 좌석이 꽉 찬 극장을 보며, 1970년대 일본의 한 급진 좌파의 폭력투쟁이 현재의 한국 관객들을 매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제3세계 민족해방, 폭력혁명, 사회주의 연대, 이런 모든 슬로건들이 ‘꿈의 잔해’로만 남아 있는, 그리고 폭력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되는 지금 우리 사회에 1970년대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의 기억을 소환한 감독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도. 영화를 보는 내내 떠오른 물음이었지만, 정작 “묻지 못한 질문”이었고 “듣지 못한 대답”이었다.¹⁵

영화는 전후 일본사, 더욱이 타이틀이기도 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라는 고유명이 생소할 한국 관객들을 위해 이 단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부터 시작한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다이도지 마사시(大道寺将司) 등이 주도한 ‘늑대(狼)’, 에키타 유키코(谷田由紀子) 씨가 활동한 ‘대지의 엄니(大地の牙)’, 우가진 히사이치(宇賀神寿一), 키리시마 사토시(桐島聡) 등 일용노동자 그룹들의 주도 하에 창설된 ‘전갈(さそり)’ 부대로 이루어진 연합전선이자 ‘논섹트 래디컬’이다. 여기서 ‘논섹트’란, 기존 공산당이나 신좌파 정파 등과 같은 특정 정파에 참여하지 않는 무당파(無黨派) 좌익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함께 연합하여 1974년 8월 14일 쇼와 천황이 승차한 열차를 폭파하려고 했던(작전 결행 직전 취소) ‘무지개작전’을 시작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폭탄 테러(1974.8.30), 다이세이 건설 본사 폭파(1974.12.10), 가시마 건설 PH공장 폭파(1974.12.23), 하자마구미 오미야 공장 폭파(1975.2.28), 한국산업경제연구소 폭파(1975.4.19), 하자마구미 게이세이 에도가와 작업소 폭파(1975.4.28) 등 일련의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다. 영화는 미쓰비시본사 폭탄 테러 사건을 주

도한 늑대 부대의 리더인 다이도지 마사시, 그리고 미쓰이 물산 폭탄 테러 사건을 주도한 대지의 엄니 부대의 에키타 유키코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들이 미쓰비시나 미쓰이 등 일본의 대기업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한 이유는 이들이 전시기 제국주의의 침범으로 동아시아의 인민들을 착취했던 약탈 기업이자, 전후에도 ‘해외진출’이라는 명목 아래 계속되는 경제적 착취에 대해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미쓰비시 중공 테러를 실행한 지 한 달 여 후인 9월 23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늑대’ 정보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1970년 8월 30일 미쓰비시 폭파-다이아몬드 작전을 결행한 것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늑대’이다. 미쓰비시는 구 식민지주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일제 중추로서 기능, 상업의 가면을 쓰고 죽은 시체를 먹는 일제의 대들보이다. 이번 다이아몬드 작전은 미쓰비시를 두목으로 하는 일제의 침략기업·식민자에 대한 공격이다. ‘늑대’의 폭탄으로 죽거나, 혹은 부상당한 인간은 ‘같은 노동자’도 ‘관계없는 일반 시민’도 아니다. 그들은 일제 중추에 기생하여 식민주의에 참여하고, 식민지 인민의 피로 살찐 식민자이다.

‘늑대’는 일제 중추지구를 끊임없는 전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제의 기생충 이외에는 모두 신속히 이 지역에서 철수하라. ‘늑대’는 일제 본국 내부 및 세계의 반일투쟁에 봉기하는 인민에 의거하여 일제의 정치·경제의 중추부를 서서히 침식하고 파괴할 것이다. 또한 ‘대동아공영권’을 향해 다시 책동하려는 제국주의자=식민주의자를 처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를 보스로 하는 일제의 침략기업·식민자에게 경고한다. 해외에서의 활동을 전면 정치하라. 해외 자산을 정리하고, 개발도상국의 자산은 모두 포기하라. 이 경고에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전사자를 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늑대’ 통신 제1호)

15 박혜수, 『묻지 않은 질문, 듣지 못한 대답』, 돌베개, 2022.

성명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그들은 일본의 노동자계급 역시 식민지화나 기업에 의한 침략에 포섭된 ‘제국주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연대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사회구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소위 과거 식민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 이상, 혁명을 위한 제 1보는 무엇보다 해외에 경제적 침략을 행하고 있는 대기업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침략을 저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중운동 일반에 의해서는 기업의 침략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 대중운동 일반 역시 앞서 말한 형태로 형성되어 온 일본의 사회구조라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운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하라하라 시계(腹腹時計)』¹⁶에서 보듯, 그들은 심지어 본국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요구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식민지 인민으로부터 더한층의 수탈과 희생을 요구하고 일제를 강화하며 보충하는 반혁명 노동운동”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유일하게 연대를 표명하는 주체는 산야(山谷)나 가마가사키(釜ヶ崎) 등 일용직 인력시장의 유동적 노동자뿐이었다.¹⁷ 따라서 기업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침략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동아시아의 피식민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 기업에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폭탄 테러를 감행한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의도야 어찌됐건, 그들이 주도한 미쓰비시중공

업 폭탄 테러로 행인 8명이 죽고 385명의 중경상자가 나오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연이은 폭탄 테러의 배후를 뒤쫓던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 오는 가운데, 다이도지 마사시, 에키타 유키코를 비롯한 무장전선의 주요 멤버들은 1975년 5월 19일 일제히 체포된다. 영화의 두 주인공 중 한 명인 다이도지 마사시는 옥중 수감 중인 1987년 사형이 확정되었고, 2017년 형기 중 도쿄 형무소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다. 에키타 유키코는 체포 후 옥중에 수감되지 만 1977년 일본항공기(JAL)를 납치한 일본적군(日本赤軍)의 인질 교환 대상으로 초법적으로 석방되어 아랍으로 건너가 활동하다, 1995년 루마니아행 비행기 내에서 체포, 일본에 송환, 재수감되어 복역 후 2017년 출소한다. 영화는 그 사건으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그들 및, 그들과 연루되었던 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¹⁸

아사마 산장의 연합적군의 폭력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폭력의 두드러진 차이는 연합적군이 그 폭력의 대상을 내부로 돌린 반면,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그 대상을 정확히 아시아를 침략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제국 일본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있다. 다이도지 마사시는 체포 이후 진술서에서 자신들의 행동의 동기를 자신의 출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밝히고 있다. 다이도지가 태어난 곳은 홋카이도의 구시로(釧路)로, 원래 이곳은 아이누의 땅이었다. 구시로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자신들의 땅을 뺏겨 보호구역에 이주해 살던 아이누 인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이 지역 탄광과 댐 공사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즉 자신은 아이누의 땅인 ‘아이누 모시리(アイヌモシリ)’를 침략한 식민자의 후예이자, 조선침략 및 식민지 지배, 타이완, 중국대륙, 동남

16 『하라하라 시계』는 1974년 2월 다이도지 마사시 등 늑대 부대원들이 자가 출판한 지하출판물이다. “도시게릴라 병사독본 Vol. 1”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이 책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학습해온 사상과 실천해온 폭탄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제목의 유래에 대해서는 시한장치를 해설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의미에서 “배꼽(하라腹) 시계”라고 정했다가, ‘하라하라’로 할 경우 시한장치로 조마조마하다(일본어로 ‘하라하라’)는 뜻도 있고, 한국어로도 “~하라”는 의미도 있어, 『하라하라 시계』라는 제목이 정해졌다고 한다. 이상 마쓰시다 류이치, 송태욱 역,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힐데와소피, 2024, 186~187쪽.

17 위의 책, 57~58쪽.

18 2023년 영화제 상영 당시만 하더라도, 체포되지 않은 채 50여 년의 세월 동안 지명수배 중이었던 기리시마 사토시는 다음 해인 2024년 1월 25일 말기 암으로 병원 입원 도중 자수하고, 그로부터 4일 후 숨을 거뒀다. 그의 죽음은 외신 보도로 한국 뉴스에도 신속 보도되었다(『한겨레신문』, 2024.1.2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26154.html> 2025년 11월 2일 검색).

아시아를 침략하여 지배한 일본제국주의의 자손이며 패전 후 시작된 일제의 신식민주의 침략과 지배를 허용하고 묵인하고 구 일본 제국주의자 관료들과 자본가들을 다시 소생시킨 제국주의 본국 사람이라는 자각에서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서가에는 프란츠 파농이나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책들이 다수 꽂혀 있었다고 한다. 당대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그 역시 식민주의의 폭력에 대해 민중의 저항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저항폭력은 정당하다는 파농의 가르침에 많은 공감을 했을 것이다¹⁹

하지만 그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정권의 폭력과 정권의 전복을 겨냥한 폭력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디스 버틀러(J. Butler)의 지적처럼 폭력은 속성상 그러한 구별 자체를 안중에 두지 않으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폭력을 제어하는 것도 쉽지 않다.²⁰ 실제로 그들이 설치한 폭탄은 너무 일찍 터졌고, 그 결과 미처 대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폭발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²¹ 영화에서 이케다 히로시(池田浩士) 교수(교토대학 명예교수)는

19 프란츠 파농이 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65년 무렵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프란츠 파농을 처음 번역한 것은 다이도지 마사시의 사촌이기도 한 민족문제 연구자 오타 마사쿠니였다. 그는 『세계혁명운동정보(世界革命運動情報)』 10-12호(レポルト社, 1968)에 파농의 「폭력론」을 3회에 걸쳐 번역한다. 1967년 영화 〈알제리 전투〉가 공개되어 피식민자의 폭력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68년 대학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베트남 전쟁에 일본이 가담하는 것을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이후 1968년에 일본에서는 『검은 피부, 하얀 가면』과 『혁명의 사회학』이 『프란츠 파농集』으로 번역되고, 그 3집으로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1969)이 번역, 출간되었다. 이상 신지영, 『동아시아 연대와 무장투쟁: 다큐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나타난 피해-가해 관계와 한일간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 수용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173~174쪽.

20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26~27쪽.

21 다이도지 마사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활동을 기록한 마쓰시다 류이치의 논픽션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따르면, 그들은 폭파 결행 전에 전화로 미쓰비시 측에 폭탄 투하 및 대피를 권고하는 통고를 했지만, 통고를 완료한 것은 폭발 직전 4분 전이었다. 사건 당일 밤 늦게 멤버들은 약속대로 모였던 커피숍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고 침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면 폭탄의 성능에 대한 판단의 오류, 유리창이 많은 빌딩가에서 폭탄을 터뜨렸을 때의 충격과 파괴력에 대한 경각심 부족, 경고 전화를 거는 시간 설정의 불충분함 등 폭파 작전이 매우 허술하게 준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마쓰시다 류이치, 앞의 책, 204~209쪽.

폭력을 생각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는 폭력이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우리 쪽에 없다는 것, 자본과 국가의 폭력-물리적 폭력의 군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법제도와 관료제도를 포함-에 비한다면, 당시 우리의 폭력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만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을 애석해 한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이 몇 년째 이어지고,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전개되면서 무수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자각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그 가공할 파괴력과 살상력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또 은폐되고 있다.

따라서 합법으로 치장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폭력이 특정 장(담론권력·사회권력·국가권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역장)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규정되는가, 다시 말해 국가폭력이 어떤 도식들을 자기정당화에 동원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 도식들이 폭력을 계속 독점하고자 하는 권력의 노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에 대한 비판에 착수해야 한다. 모종의 명명 관행-폭력을 법의 강제력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대상에 가해진 폭력을 대상에 의한 폭력으로 전도함으로써 국가폭력을 외부폭력으로 재인식시키기도 하는 관행-에 의지하는 국가의 폭력 독점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또한 이케다 교수가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처럼, 국가에 맞서는 우리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 즉 인간은 단 한 명이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75년에 체포되어 향년 68세의 나이로 2017년 옥중에서 백혈병(다발성 골수암)으로 죽을 때까지 다이도지 마사시는 옥중서한과 수백편의 하이쿠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을 멈추지 않았다(옥중에서 그는 무려 4권의 하이

22 버틀러, 앞의 책, 17쪽.

쿠집을 발간했다).²³ 영화 속에서 다이도지의 사촌 형이자 민족문제 연구자인 오타 마사쿠니(太田昌国)의 목소리로 낭독되는 그의 하이쿠—“危めたる吾が背に掛かる痛みかな’加害せる吾花冷えのなかにあり(죽인 나의 등에 짊어진 아픔이어라, 가해한 나는 꽃샘추위 속에 있고)” —에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는 가해의 기억과 함께, 가해자인 자신에 대한 책망과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이 짙게 배어 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 폭파투쟁에 대한 총괄로서 옥중에서 쓴 성명서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에 온 몸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각오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폭파투쟁은 잘못이고, 실패였습니다. 공격해서는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많이 다쳤습니다. 죽고 다친 분들, 그리고 유족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본인은 총체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피억압 인민에 기생하며 살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국민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사상자를 식민자라고 잘못 규정하고 이 폭력의 결과를 정당화시키는 성명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늑대)부대가 해야만 했던 것은 미쓰비시중공업 폭파에 대한 잘못과 실패를 솔직하게 자기비판하고 사상자 분들께 사죄하며, 그 후에 이 작전과 같은 잘못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능한 분명히 해서 정확한 반일무장투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야말로 진정한 자기비판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다큐<동아시아

아반일무장전선> 중에 나오는 다이도지 마사시의 독백)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면서도, 그는 옥중에서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수감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외로운 싸움을 지원하는 감옥 바깥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폭탄 테러를 결행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싸움의 목적을 이해해줄 것이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일본 인민이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무겁고 깊은 반혁명성에 대한 건딜 수 없는 마음, 예를 들어 자신들만 괜찮으면 베트남 인민이 미군에게 죽임을 당하든 말든,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일본의 원조를 받은 군사독재정권이 인민을 탄압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수많은 일본 인민에 대한 절망감과 불신감(과거 자신의 중학시절 동급생이었던 아이누 여성에게 다이도지가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 사로잡혀 있었다.²⁴ 도심 한복판의 폭탄 테러도,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엿보이는 일본 인민들의 생명에 대한 경시도 그 철저한 고립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테러의 결과로서, 그들을 지원하는 그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다소 역설적이다.

다이도지 마사시의 선배로 다이도지가 쓴 도시 게릴라 폭력투쟁의 교본인 『하라하라 시계』를 인쇄한 출판업자이기도 한 후지타 다쿠야(藤田卓也)는 구시로를 찾아온 감독을 예전 아이누 모시리로 안내하며 홋카이도의 침략의 역사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희생에 대해 증언한다. 지금도 그와 함께 하는 시민 그룹은 매년 8월, 구시로에서 이들 희생된 조선인들을 위한 추도식을 엄수한다고 한다.²⁵ 대지의 어머니 부대의 리더로 1975년 체포 직

²³ 하이쿠는 17자로 이루어진 일본 특유의 짧은 시 형식이다. 일본에서 사형수가 유예되는 7.5제곱미터의 독방에서 다이도지가 하이쿠를 지었던 심정에 대해 오타 마사쿠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의 사형수가 유예되어 있는 곳은 불과 7.5제곱미터의 독방이다. 머리 위 천장에는 24시간 그 동태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풍경에서는 동떨어져 있어 날씨가 좋고 나쁜지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다. 하이쿠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조 풍월(花鳥風月)을 읊는 시인이 많지만, 다이도지의 경우는 그 실물을 감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금되기 전인 26살까지 접한 외부 세계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그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형수인 자신이 하이쿠를 지을 때 환기하는 것은 ‘가해의 기억과 회오이고 지진 피해, 원전 사고, 그리고 뒤송송한 상황 등에 대해서다’라고 했다[『잔월: 다이도지 마사시 하이쿠집』(太田出版, 2015)의 “후기”].” 이상 마쓰시다 류이치, 앞의 책, 12~13쪽.

²⁴ 위의 책, 249~250쪽.

²⁵ 구시로에 위치한 시운다이(紫雲台) 묘지에는 전쟁 말기 항만 공사나 탄광 노동에 동원되어 숨진 100여 명의 강제동원 조선인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구시로 시민의회의 주도로 이들의 죽음을 위령하기 위한 태평양전쟁강제노동희생자위령비(太平洋戦争強制労働犠牲者慰霊碑)가 1973년에 건립되었고 매년 8월 20일에 이 비 앞에서 추도식이 거행된다. 비에는 “이 곳에 잠든 약 100명의 한국, 북조선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자유와

후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사이토 가즈/노도카(齋藤 和)의 친구인 나카노 히데유키(中野英幸)는 사이토가 자신에게 했던 “진심으로 지원하라. 왓지떨 운동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인으로서는 부끄러우니까.”라는 말을 떠올리며 당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투쟁에 대한 사이토의 진심을 전한다. 에키타 유키코 지원 그룹의 일원인 도모노 시게오(友野重雄) 역시 폭력이라는 수단은 잘못이지만, 그들의 뜻과 동기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대신해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지원 변호를 맡은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일본의 전쟁 책임, 천황의 전쟁책임이 점차 잊혀져가는 사회에서 기업의 전쟁책임을 물었다는 데 있으며, 이들 역시 재판 중에 자신들의 행위의 불충분함은 충분히 인정했지만, 테러에서 재판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일본 근현대사에서 미청산의 문제, 식민지 지배, 전쟁책임과 기업의 문제가 일본 사회 전반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을 강조한다.

감독은 영화 후반부에 감독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한 에키타 유키코의 최종의견 진술서(2002)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다. 동아시아반일 무장전선의 투쟁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현재 시점에서 혁명 이후의 사회를 물적으로, 인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가는 투쟁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에서, 자신은 이제 혁명의 병참임무를 맡기로 희망한다는 것, 적을 타도하고 파괴하기보다 자기편의 힘을 키우며 창조하는 투쟁,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않는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현재 생활 터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이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에는 과거 자신들이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말하려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야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하에서 비합법활동을 시작했다가, 권력의 손에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준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이 깃들여 있다.

물론 에키타 유키코의 최종의견 진술서는 어떤 측면에서 자신들의 과거 행동 자체에 대한 부정, 나아가 ‘전향(轉向)’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본 사상사에서 ‘전향’은 “일본 근대사회의 구조를 총체적인 비전으로 포착하는데 실패했던 지식인(인텔리겐차)들 사이에 일어난 사고변환”²⁶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전시기 군국주의 치하의 억압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하에서 이루어진 맑스주의자들의 대규모 집단전향으로부터 전후 일본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굴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막다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자, 환멸’이나 ‘좌절’, 혹은 ‘성숙’의 결과로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²⁷

하지만 진술서에 제시된 그의 입장은 결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다이도지 마사시의 참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들이 행한 폭력의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 그리고 모두의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즉 살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전제 아래, 누군가의 생명을 폭력으로 망가지지 않게 보살피야 한다는,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를 새로이 만들어내고자 하는(“현재 생활 터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이 생각을 실천하는”) 각오는, 결론적으로 그러한 비폭력 원칙을 견지함으로써야 비로소, 모든 생명에 동등한 ‘애도 가치’²⁸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자체

행동의 자유를 빼앗긴 채 항만, 탄광 등 강제동원 중에 희생된 사람들이 다. ... 우리들은 전쟁에 희생되어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해 국경을 넘어 민족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여기에 맹세한다.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민 개개인의 염원을 담아 이곳에 위령비를 세운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2025년에는 제54회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26 吉本隆明, 「轉向論」, 『マチウ書試論・轉向論』, 東京: 講談社, 1990[1959], 286쪽.

27 후지타 쇼조, 최종길 역, 『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논형, 2007, 168~170쪽 참조.

28 버틀러는 자신의 논의가 갖는 당위적 희망에 대해 “애도 가치의 급진적 평등이라는 정치적 상상계를 정식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를 부정하는, ‘제국 일본’의 폭력을 위시한 기존의 폭력들에 대한 진정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의 결과로 독해해야 할 것이다.²⁹

4. 나가며: 반성과 속죄, 그리고 반폭력의 문제설정

“늑대여, 이루지 못한 꿈을 계속 좇아[狼や見果てぬ夢を追ひ続け]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엔딩 크레딧

동시대에 일어난 두 개의 폭력, 즉 연합적군의 폭력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폭력은,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사건 이후 그들이 걸어간 궤적, 즉 그 폭력이 낳은 유산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다.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된 연합적군이, 결국 그 폭력을 내부로 돌려 ‘총괄’이라는 형태로 동지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비극을 낳았고, 그 내부 린치 살해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자멸의 길을 걸어간 궤적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 바 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역시 전후에도 경제적 침략을 멈추지 않던 일본제국 주주의 심장부인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폭탄 테러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

다. 여기서 애도가치의 평등이란 죽은 사람을 애도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나 애도 받을 권리가 죽은 사람에게 있다는 뜻에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에 애도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죽든 언제 죽든 죽었을 때 애도 받을 만하리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 사회정책과 제도들, 그리고 정치적 삶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 제도들이 애도가치의 급진적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제도들의 맥락 안에서 그려지는 모든 삶이 지켜질 만한 삶이어야 한다는 뜻, 모든 죽음은 인지되고 애도 받는 죽음이어야 한다는 뜻, 이들의 삶, 혹은 저들의 삶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00~102쪽.

29 일본의 사상이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루쉰에 대한 글에서 ‘전향’과 ‘회심(回心)’을 구분하면서, 그 차이를 저항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에키타 유키코의 사상적 변화를 ‘전향’보다는 ‘회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백지은 역, 『근대란 무엇인가』,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 53~54쪽.

결과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체포 이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피억압 아시아 인민에 대한 연대라는 이상은 이후 그들을 지원하는 모임들을 통해 계승되었다.

무장전선의 멤버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를 결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급했던 것도, 천황을 암살하고자 했던 ‘무지개작전’(1974.8.14)의 실패 다음 날인 8월 15일 재일조선인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소식을 들은 후, 자신들과 동세대인 재일조선인 청년의 결사적인 결기를 결코 내버려둘 수 없고, 서울의 옥중에 갇힌 그에게 한 시라도 빨리 호응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초조함 때문이었다고 한다.³⁰ 미쓰비시 중공업은 전시기의 가장 거대한 무기 공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조선소 등지에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동원하면서, 그로 인해 피폭당한 조선인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아시아 경제 침략의 침병 같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쓰비시에 대한 공격은 문세광의 투쟁에 호응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³¹ 물론 그러한 조급함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만, 피억압 아시아 인민들과 연대하며, 그들과 다른 세계에 속한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식민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안온한 생활을 부정(포기)하면서까지 운동에 투신하면서 그들과의 연대를 모색했다는 점에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쟁의 목적에서 구별되는 차이는 사건 이후 이들이 삶을 영위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와도 연결된다.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연합적군의 리더 중 한 명이었던 모리 쓰네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평생을 자기비판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1년의 옥중생활을

30 다이도지 마사시, 강문희·이정민 역, 『최종 옥중 통신』, 에디투스, 2022, 150쪽.

31 마쓰시다 류이치, 앞의 책, 278~279쪽.

끝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물론 자살을 과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가장 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정 투쟁을 포기한 채 감옥에서 이루어진 자살은 연합적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투쟁에 대한 사실상의 자기 부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³² 함께 체포되어 수감된 나가타 히로코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커다란 뉘우침 없이 연합적군 내부의 정치적 이합집산을 되풀이하다가 2011년 만 65세의 나이에 지병인 뇌종양으로 옥중 병사했다. 체포된 다른 대원들 역시 동지들의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은 모리에게 있으며, 자신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한 한편, 어떤 측면에서는 참가를 강요당한 희생자이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스테인호프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전시 일본의 지도체제에 대해 비판했던 ‘무책임의 체계’의 반복(refrain)을 확인한다.³³

그런 점에서 이들의 말로는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속죄를 거듭하면서도, ‘반일’이라는 투쟁의 의의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던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멤버들의 치열한 옥중의 삶과는 대비되는 것이다.³⁴ 그들은 스스로

를 대지의 엄니 부대의 전 구성원이자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거부하며 자살한 사이토 노도카의 별칭인 ‘가즈’에서 연유한 ‘KAZ 병사단’이라 부르며, 옥중 투쟁, 법정 투쟁을 이어 나갔다. 이는 옥중에서 섹트 내부의 정치적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자멸해갔던 연합적군들과는 분명한 차이이다. 와카마쓰 감독이 마지막까지 연합적군의 싸움의 의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의 접근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연합적군 자신의 사상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합적군의 린치 사건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테러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 폭력은 그 정치적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다이도지 마사시나 에키타 유키코 등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멤버들의 이마에 찍힌 ‘폭탄마’라는 낙인은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작가 마쓰시다 류이치는 다이도지 마사시 등과 서신 교류를 시작했던 1984년 무렵, 자신이 주관하던 〈풀뿌리 통신〉이라는 소식지에 이들 반일무장전선 멤버들과 나눈 서신을 게재했을 때, 소식지의 독자로부터 받았던 비판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1973년 규슈의 부젠(豊前)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를 둘러싼 소송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창간한 기관지로부터 출발해 환경문제 등의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 성격의 잡지였기 때문에 그는 이 서신이 잡지의 독자들에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열성적인 독자로부터 온 편지는 일반시민들까지 희생시킨 범인들을 옹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소식지 구독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권력이 ‘늑대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지난 전쟁에 무수한 병사를 죽게 만든 천황이나 당시 미나마타병을 일으켜 무수한 사람들을 죽게 만든 기업 집소를 우선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는 자신의 반론이 “사망자에게 계속 집착하는 얼핏 성실

32 스테인호프 역시 모리의 자살에 대해 “고전적으로 해석하자면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집단의 행동에 책임을 짐으로써 다른 멤버들이 책임을 면하게 하고자 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리의 유고에 그런 의도는 확실히 쓰여 있지 않으며 동지들도, 법정도 그의 자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모리의 죽음은 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이상의 의미도 지니지 못했다”라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스테인호프, 앞의 책, 319쪽.

33 위의 책, 319~320쪽.

34 다이도지 마사시가 옥중에서 썼던 많은 하이쿠에 죽은 자들에 대한 속죄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은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며 옥중과 옥외 지원자들을 잇는 매체였던 『기타코부시키타코브シ』(1987~2017)라는 잡지에 주기 직전까지 꾸준히 게재했던 그의 하루하루의 기록, 즉 ‘옥중통신’을 보면, 매년 미쓰비시 중공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인 8월 30일자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족들에 대한 사죄,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참회가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의 폭탄 테러의 결과에 대한 참회가 반일 투쟁의 의의의 포기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당시 옥중에 있던 전갈부대원 구로카와 요시마사 등이 쓴 『아랍지역 동지들의 총괄문서』에 나온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에 대한 자아비판에 대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해자인 자기를 부정해가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자기를 해방시켜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성을 위해서는 반

일사상을 주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반일사상을 부정하거나 청산하는 게 아니라고 단언하는 서한을 보낸다.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작전이 인명피해를 낸 것은 반일사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일사상을 주체적으로 육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 다이도지 마사시, 앞의 책; 신지영, 앞의 논문, 166~167쪽.

해 보이는” 평범한 일본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을지, 당시의 사건을 복기하면서 그는 자문한다.³⁵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폭력에 대해 성찰한 다큐멘터리가 그 사건으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역설적이다. 무장전선 멤버들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1987년, 과거 전갈 부대의 일원인 구로카와 요시마사(黒川芳正)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어머니들[(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の)母たち]>이라는 8mm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은 있지만 극장 상영 작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김미례 감독의 다큐는 일본 사회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첫 번째 작품이었다. 일본 전국 30여 곳의 소극장에서 상영된 이 작품은 예상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을 불러 모았다고 전해지지만,³⁶ 정작 다이도지의 고향인 구시로에서는 상영되지 못했다. 2024년 여름 구시로의 지인들을 방문했을 때 구시로에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자주상영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보았지만, 역시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 다이도지를 향한 지역 사회의 여전히 강고한 싸늘한 시선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였다. 출소한 에키타 유키코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테러리스트가 돌아오면 곤란하다는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귀향하지 못했다고 한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싸움의 거점을 확보했을까?

식민지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력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며, 폭력의 행사야말로 식민지 민중들을 한 단결시키고, 폭력은 그들에게서 열등감과 좌절, 무기력을 없애주며 용기와 자존심을 되찾게 해 준다는, 파농 식의 폭력에 대한 ‘예정조화설’이 자리를 얻

을 수 있는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³⁷ 영웅적인 탈식민 투쟁으로 독립을 획득하고 건설된 제3세계의 민족국가들이 학살과 내전, 거듭되는 군부 쿠데타,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민들을 탄압하는 독재정부라는 수렁 속에 빠져버린 비극의 역사를 지금의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한때는 전 세계 피억압 인민들의 빛나는 희망이었던 제3세계가 빠져버린 거대한 폭력의 구멍(함정)을 보면서, 폭력 자체에 혐오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의도/명분이 무엇이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지배 권력에 억눌린 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폭력론에 갇든 이러한 아포리아를 타개하기 위해 주디스 버틀러는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기존 도구주의 프레임을 넘어선 논의를 통해, 윤리적이면서 정치적인 비판적 논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비폭력을 모종의 가능한 행동장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채택하게 되는 윤리적 입장이라는 식의 이해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윤리적 정치적 애매함을 경유하지 않는 비폭력 실천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다. 다시 말해 비폭력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구체화하는 전 지구적 상호의존을 기리는 방향의 세계 건설에의 참여를 동반한 저항이자, 항상 힘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해 신중하게 숙고하며, 저항의 힘이 새로운 불의를 자행하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시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절대적 원칙이 아닌 진행 중인 투쟁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버틀러는 이를 “체현의 윤리적 양식화(an ethical stylization of embodiment)”로서의 비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⁸

35 마쓰시다 류이치, 앞의 책, 241~248쪽 참조.

36 太田昌国, 2024, “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のメンバーの親たちは何を思ったのか? 作家たちは事件をどう描いたか? 『桐島聡問題を考える』,” 『現代メディア』 2024.2.26. (인터넷 판 <https://gendai.media/articles/-/124855?page=2> 2025년 10월 13일 검색)

37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10, 1장 폭력에 대하여 참조.

3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28~39쪽 참조.

기나긴 수감 생활 동안 다이도지 마사시와 에키타 유키코 등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의 구성원들이 지원 그룹들과의 교류, 그리고 독방에서의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얻어낸 결론은, 버틀러가 아직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한 “폭력의 제도적 삶”을 전복시키기 위한 “에토스-실천”³⁹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극단적 폭력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주체의 가능성을 잠식하고 더 나아가 파괴를 초래한다면, 남는 과제는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을 결정하면서 폭력을 수단 내지 전술 문제로 전락시켜버리는 저항폭력의 원환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적 선악이분법에 의존하면서 폭력을 무차별적 비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비폭력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며, 폭력 자체에 맞서는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발리바르가 주창해온 ‘반폭력(anti-violence)’의 문제설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⁴⁰

1970년대 고도소비자본주의(“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들라”)로 이행하던 시기, 일본 사회에 출현한 두 개의 폭력, 그리고 패배의 기록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전히 승리를 거둬고 있는 적들 앞에서, 벤야민은 과거로부터 희망의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재능이 주어진 사람은 오로지, 죽은 사람들까지도 적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는 특정한 역사

가뿐이라고 썼다. 그 비참한 몰락과 패배의 기록 앞에서 그의 잠언(『역사의 개념에 대하여』8)을 다시금 떠올린다.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상태’(Ausnahmezustand, 예외상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역사의 개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비상상태를 도래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로써 파시즘에 대항한 투쟁에서 우리의 입지가 개선될 것이다. 파시즘이 승산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적들이 역사적 규범으로서의 진보의 이름으로 그 파시즘에 대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20세기에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데 대한 놀라움은 전혀 철학적인 놀라움이 아니다. 그 놀라움은 그 놀라움이 영원한 역사적 관념이 지탱될 수 없다는 인식의 출발점에 있다면 모르되, 어떤 다른 인식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⁴¹

39 위의 책, 84쪽.

40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135~136쪽. 발리바르의 저서의 역자이자 철학자인 진태원은 발리바르의 반폭력이라는 문제설정이 정치의 가능성의 조건을 잠식하는 극단적 폭력(내지 잔혹성)에 저항하는 정치로서 시민다움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시민다움의 정치란 “행위자들 사이의 인정과 소통, 갈등의 조절을 가로막는 극단적 폭력의 형태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활동(그 실행의 ‘시간’과 ‘공간’)의 가능성의 조건들 자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진태원은 비폭력과 대항폭력으로 분류되는 기존의 폭력 이론, 특히 대항폭력을 중심으로 한 반국가적, 반제도적 폭력이론에 비해 현대 사회의 폭력 현상들을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 진태원, 「극단적 폭력과 시민다움: 에티엔 발리바르의 반폭력의 정치에 대하여」, 『철학연구』 118집, 철학연구회, 2017, 79~109쪽 참조.

41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 도서출판 길, 2008, 336~337쪽.

참고문헌

1. 기본 자료(영상 자료)

- 〈突入せよ! あさま山荘事件〉, 原田真人, 2002.
 〈実録・連合赤軍 あさま山荘への道程〉, 若松孝二, 2008.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 김미례, 2020.

2. 단행본 및 논문

- 강수미,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2011.
 김항, 『어떤 패배의 기록: 전후 일본의 비평, 민주주의, 혁명』, 창비, 2025.
 다이도지 마사시, 강문희·이정민 역, 『최종 육종 통신』, 에디투스, 2022.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백지운 역, 「근대란 무엇인가」,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1948].
 마쓰시다 류이치, 송태욱 역,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힐데와소피, 2024.
 미셸 푸코, 오토트랑 역,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박혜수, 『묻지 않은 질문, 듣지 못한 대답』, 돌베개, 2022.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 도서출판 길, 2008.
 ———, 김영옥·황현산 역, 『중앙공원』, 『발터 벤야민 선집 4: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도서출판 길, 2010.
 버틀러, 주디스, 『비폭력의 힘』, 김경아 역, 문학동네, 2021.
 비자이 프라사드, 박소현 역, 『갈색의 세계사: 새로 쓴 제3세계 인민의 역사』, 뿌리와 이파리, 2015.
 신지영, 「동아시아 연대와 무장투쟁: 다큐〈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나타난 피해-가해 관계와 한일 간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 수용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오에 겐자부로, 양역관 역, 『하마에게 물리다』, 고려원, 1997.
 이매뉴얼 월러스틴 외, 천지현·송철순 역, 『반체제운동』, 창작과비평사, 1994.
 진태원, 「극단적 폭력과 시민다움: 에티엔 발리바르의 반폭력의 정치에 대하여」, 『철학연구』 118집, 철학연구회, 2017.
 페트리샤 스테인호프, 임정은 역, 『적군파: 내부 폭력의 사회심리학』, 교양인, 2013.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역, 그린비, 2010.
 후지타 쇼조, 최종길 역, 『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논형, 2007.
 坪内祐三, 『一九七二:「はじまりのおわり」と「おわりのはじまり」』, 東京: 文藝春秋, 2006.
 太田昌国, 「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のメンバーの親たちは何を思ったのか? 作家たちは事件をどう描いたか『桐島聡問題を考える』」, 『現代メディア』, 2024.
 野上元, 「あさま山荘事件と「戦争」の変容:「メディア論」の現代史のために」, 北田 暁大[外編], 『カルチュラル・ポリティクス 1960/1970』, 東京: せりか書房, 2005.
 吉本隆明, 「転向論」, 『マチウ書試論・転向論』, 東京: 講談社, 1990.

Abstract

Lynchings and Bombs: Two Images of Violence that Emerged in Postwar Japanese Society

Lee, Yung-Ji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wo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political violence in early 1970s Japan—Kōji Wakamatsu's 〈United Red Army〉(2008) and South Korean director Kim Mi-Rye's documentary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2020). By analyzing these films, the study reconsiders the powerful image of “violence” constructed by mainstream Japanese media around the United Red Army incident and the bombing attacks carried out by the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It seeks to move beyond the representational field shaped by this media discourse and to explore alternative meanings of violence as a political and ethical act.

The two incidents, which unfolded as postwar Japan entered the stage of advanced consumer capitalism, were thoroughly demonized by the media and came to symbolize the end of the “season of politics” that had defined the 1960s. While Wakamatsu's film meticulously reconstructs the ideological process through which the United Red Army's internal purges transformed into a death-driven logic, it ultimately fails to explain why such violence emerged or why the group lacked mechanisms to restrain it. By contrast, Kim's documentary traces the lives of the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members—still stigmatized as “terrorists” in Japan—revealing their enduring reflection, remorse, and commitment to anti-imperialist critique and East Asian solidarity.

More than fifty years later, these ongoing gestures of reflection and solidarity transcend the instrumentalist binary of violence and nonviolenc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what Judith Butler terms an “ethos-practice” that resists “the institutional life of violence.”

Keywords postwar Japan, United Red Army,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post-colonialism, nonviolence, anti-violence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